

INTO THE GARDEN

January, 2018 | 김지선 에디터

page 1 of 2



푸른 약어와 함께 의자가 사라지는 마법을 선보인 장연두 작가의 원도.

# INTO THE GARDEN

황금빛 에르메스 매종 도산파크 안에 매혹적인 정원이 펼쳐졌다. 폭포 소리와 새 소리를 들으며 낙엽을 밟고 얼음 조각을 건너다 보면, 신비로운 야생 동물처럼 곳곳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펍티 아쉬(petit h)의 보물들과 마주치게 된다.



펍티 아쉬의 가죽 제품들.



펍티 아쉬 전시 공간 오크나무와 탐험용 키트(크리크 가죽으로 장식된 드레스폼이 흰개운의 자리 잡고 있다.

펍티 아쉬 전시가 열리고 있는 에르메스 매종 도산파크는 어른들을 위한 원더랜드 같았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데스크와 위트 있는 수탉 모양 책장, 오크 나무와 밤나무 가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드레스폼 등 고이 내 방에 모셔가고 싶은 실용적인 물건들은 물론이고, 순수한 유희와 재미를 선사하는 오브제들도 저마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원숭이 오브제나 손으로 끈을 잡아 당기면 제기 발랄한 제스처를 취하는 병정 오브제를 보고 미소를 짓지 않았다면, 당신은 재미없는 어른이 된 게 맞다. 하나 하나 들여다보며 만지작거리게 되는, 이 모든 물건들은 에르메스의 '자투리' 재료로 만들어졌다.

재단되고 남은 가죽이나 스카프를 만들고 남은 실크 등 제품 제작 과정에서 남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펍티 아쉬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아티스틱 디렉터 파스칼 뤼사르(Pascal Mussard)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에르메스 가문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에르메스의 아카이브를 경험한 그녀는 모든 물건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었던 최고급 재료들을 예술품으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어린 시절부터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했다는 그녀는 '버려진 물건들'이라는 말 대신 '잡자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 펍티 아쉬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파리 세브르 매장에서만 상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전 세계를 순회하는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는데, 이번에 마침내 이사당스러운 물건들이 서울을 찾았다. 전시 오픈닝 날 파스칼 뤼사르

사진/ Nam Gyeong, Kim Sangjae



는 물건 하나 하나를 다정하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수선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건을 쓰는 즐거움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으니 좋은 일이지요."

쁘띠 아쉬워 컬렉션은 에르메스가 가진 제품에 대한 철학과 장인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자신만의쁘띠 아쉬워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워크숍도 마련된 이번 전시를 경험하며 평탕에 위치한쁘띠 아쉬워 공방에 방문하고 싶어진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에르메스가 초대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는 이 공방에서는 매일 배달되는 새로운 소재들로 염금술을 펼친다. 컬러 백을 빼꾸기시계로 변신시키는 이 공방에서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에르메스 메종 도산파크의쁘띠 아쉬워 전시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서둘러야 하는' 마감 중의 인간도 오랫동안 머물게 할 만큼 흥미로웠다. 수백 번은 본 에르메스 메종 도산파크의 황금빛 건물들의 문을 여는 순간 숲이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번 전시의 시노그래피를 맡은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는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주제로 사진과 다양한 조명, 그리고 조각품들을 조합하여 마법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출입구에 들어서면 충청북도 서산 부근에서 촬영했다는 얼음 폭포와 얼음을 가득 담고 있는 아이비, 눈 덮인 바위가 보이고, 그 위에서쁘띠 아쉬워의 가족 동물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매장 안에 펼쳐져 있는 제주도 말 목장의 들뜬 풍경과 사라니 숲에서 찍은 삼나무 숲 풍경 속에도쁘띠 아쉬워의 물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천장에서부터 줄기가 내려온 식물 옷걸이에 망토가 걸려져 있고, 바닥에서부터 줄기가 올라와 있는 연약한 잎 위에 보자기가 앙증맞게 놓여 있는 식이다. 바닥에 쌓여



숲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다담들과 나무에 걸려 있는 실크 벨트.



한편으로는 전시가 끝난 이후의 '영소'가 걱정되기도 했다. 레노베이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빈껍데기인 에르메스 메종에 작업이 잔뜩 쌓였으니 말이다.

이 기묘한 감각은 매장 밖에서도 이어진다. 정연두 작가는 원도 디스플레이에도 시적인 풍경을 펼쳐놓았다. 크고 작은 에르메스의 창문 안에 경상남도 하동의 녹차밭, 제주도 서귀포의 감귤농장 그리고 충청남도 서천의 생태공원 풍경이 담겨 있다. 이 안에 어우러져 있는 미술적 상상력을 더한 키네틱 조각을 잊지 말고

감상하길. 좁은 쇼윈도 안에 들뜬과산, 강 풍경이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현되어 마치 자연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정연두 작가는 "흔히 미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행위들이라 여기어지지만, 이 원도 디스플레이에서 구현된 미술은 스키프의 움직임 속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트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는 이들은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되어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속임수인 것을 알고도 신기해하는 미술처럼, 에르메스 스키프 뒤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동심 어린 눈으로 즐기면 된다. 오랜지나무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가 열리고, 가방에서 분재나무가 나오고, 푸른 약어가 의자와 함께 사라지는 등의 마법 같은 요소들로 평범한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규칙을 뒤집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곧쁘띠 아쉬워가 탄생할 수 있었던 철학이기도 하다. 에르메스의 숲에서 발견한 생명력 넘치는 물건들이 이 사실을 말해준다. **18** 에디터/ 김지연

